

조국은 우리 삶의 영원한 품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어언 일흔다섯번째의 년들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조국을 그 이름 불려만 보아도 한없이 달랠 수 없고 어머니조국의 건국명절을 맞이한 우리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태양조국의 해외공민들 가슴부듯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9월의 조국 하늘가를 우러러 축원의 인사,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습니다.

공화국은 진정한 우리의 고향

일본 도쿄의 한복판에 우뚝 서있는 조선회관상공에서 힘차게 나뭇기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면 마음은 절로 숨쉬게 되고 어머니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생처럼 솟아옵니다. 조국해방과 더불어 일떠선 조사회관은 근 80년의 역사와 더불어 여러번이나 옮겨졌지만 회관상공에서는 지난 75년간 우리의 공화국기가 어느 하루도 나뭇길을 멈춘적 없었습니다. 오늘도 도쿄의 상공에서 찬란히 휘날리는 람홍색국기를 보노라니 해방의 기쁨을 안고 고향땅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헤어졌던 동포들이 일본으로 되돌아오던 모습이 어제처럼 방불히 떠오릅니다. 회관상공 남조선으로 귀국했던 수많은 동포들이 족배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오는것을 보고 절했던 저는 의혹을 글할 수 없어 이웃집 할머니에게서 사람들이 왜 다시 돌아오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이 그대로 고향이라고 찾아왔지만 미국놈들과 민족반역자들이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는 집과 직업을 얻기는 고사하고 한시도 마음편히 살 수 없어 다시 온다고, 그곳은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고 조국이 아니라 이국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굵직한 획으로 이런 글밭이 절로 새겨집니다. 《조국은 우리 삶의 영원한 품!》 공화국이야말로 우리 재일동포들을 따듯히 품어안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주는 영원한 삶의 품이라는것을 한생토록 생생히 새겨안고있는 력사의 체험자, 증견자로서 재일조선인운동사의 갈피마다에 깃들어있는 어머니조국의 진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운데서 그 일부를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한집안식솔로 안아주는 품

지금도 저 멀리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노라면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이 조국에 오는것은 본가집에 오는것과 같다고 하시며 자주 오라고 당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같은 음성기 들려옵니다. 본가집! 참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국은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있어서 자애로운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제가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 뵈은것은 지금으로부터 33년전인 주체 79(1990)년 9월중순 어느날이었습니다. 조국을 방문하고있던 우리 일행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퍼그나 늦은저녁이었습니다. 한달음에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간 저희들은 그만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저희들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식사를 뒤로 미루신채 우리를 기다리고계시었던것입니다. 너무도 송구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면길에 수고가 많았다고 반갑게 맞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어머니의 따듯한 손길로 저희들을 식탁으로 이끄셨었습니다. 아무런 격식과 틀도 없이 우리들을 한집안식솔처럼 대해주시며 저희들앞에 손수 음식그릇까지 놓아주시던 어머니장군님.

모두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 광경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여명규모로 경축대표단이 구성되었지만 미일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일부 대표들만이 조국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으로 가슴끓이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평양사나 바다길에 올랐던 그날에 한덕수동지가 쓴 시 《조국으로 가는 길》을 조용히 외워보면 조국을 따러는 우리 동포들의 지향이 얼마나 열렬했었는가를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영원히 안겨살 아버지의 품

세월을 넘어 흐르는 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일동포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각별하고 다정한 사랑과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이며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공화국창건절을 맞는 9월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경모심이 더욱더 붉게 타는 그리움의 계절이고 원수님만을 끝까지 따를 철성의 신념이 가슴속에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 치는 충효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인 주체 103(2014)년 9월 저는 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저희들은 먼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금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허공만이 찼다고 반겨맞아주시는것만 같아 한껏 쌓였던 그리움의 등을 터치고야말았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그리움은 없다지만 조국에 대한 저의 그리움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만졌으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정이 너무도 뜨겁고 깊기때문이었습니다. 태양의 은혜로움과도 같았던 그 정을 잃은것만 같아 링 링떨어지는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사랑을 채워주시는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정교고 열렬한것인가를 저는 조국방문의 나날에 가슴뜨겁게 체험하였습니다. 저의 조국체류일정은 중앙병원에서 종합검진과 치료를 받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수습처레나 조국을 방문하였지만 이런 류다른 일정은 처음이어서 영문을 몰라하는 저에게 조국의

부르시어 생일상도 차려주시고 오래간만에 고향집에 찾아온 자식에게 갖가지 음식을 차려주는 어머니마냥 가정에서 손수 떡까지 쳐주시던 장군님은 진정한 자애깊으신 위대한 어머니이시었고 장군님 계시는 평양은 기쁨 떠나 힘 때나 달랠 수 없고 어머니조국은 본가집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혈연의 정을 맺은 그날부터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해진 어머니의 따듯한 사랑을 받아안으며 우리 재일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역만리에 있어도 외로움을 모르고 사는 행복한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포자녀들을 위해 재배산삼을 수만뿌리나 보내주시는 이야기며 일군들의 건강을 해아려 응어린 조치도 취해주시고 조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재일조선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열차를 편성해주도록 하신 이야기 등 멀리 떨어져 사는 이역의 자식들을 위해 베풀어주시던 특전특혜에 대해 다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이

총련은 진정한 우리의 고향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가 있을 때, 행복한 날보다 어려운 때에 더 잘 알게 되는 법입니다. 조국이 허리를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 도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변함없이 돌리던 크나큰 사랑에서 저희들은 피와 살을 나누어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때와 똑같이 해마다 보내주시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며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시는 귀중한 자금들은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변함없이 이역의 자식들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고 정같은 사랑이 그대로 응축되어있었습니다. 정녕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한집안식솔로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육체적인 사랑은 열도와 깊이에 있어서 이 세상 제일 뜨겁고 응심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장동지가 나이도 많고 눈도 좋지 못한데 먼저 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몸소 일행을 잡아주시었다고 말하는것이었습니다. 로한무척아프고 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왔는데 이렇듯 다신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원수님의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저는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이지 그해의 조국방문의 나날은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조국의 향취가 한껏 어린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은 재일동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그대로였습니다. 똑같은 조국방문의 나날을 마치고 조국을 떠나던 그날을 저는 눈에 훤히 들어가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30여일간의 조국체류일정을 마치고 속소에서 출발준비를 하고있던 저는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를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하고 따듯한 보살핌속에 조국체류기간 최상의 영양과 행복을 다 누리던 저희들이 고마움의 인사도 미처 올리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친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 넘치는 편지를 보내주시셨으니 저는 너무도 놀랍고 꿈만같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국에서 마지막밤을 보낸 행복의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슬하를 떠나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운반 잘 못이루시며 은정넘치는 사랑의 편지를 쓰신줄을 제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격정으로 떨리는 두손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봉투를 개봉하니 너무도 낮익은 그이의 존귀하신 필체가 순간에 안겨들어 저는 편지를 읽을 생각도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소 마음을 진정하기는 하였으나 《존경하는 허종만동지!》라는 첫 문구에 저는 또다시 오열을 터치고야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께서는 허충만의장과 총련을 굳게 믿는다는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는 때 저는 거대한 산악을 통해 받아안은듯 가슴이 벅차올라

끓어오르는 걱정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고 뜨거운 그 사랑은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던 사랑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전략적전선과 함께 총련강화발전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시는 력사적서한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진전적발전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강령도 밝혀주시었습니다. 새해 첫날과 기념일들 그리고 저의 생일때마다 축진과 축하문을 꼭꼭 보내주시어 우리들의 앞날을 뜨겁게 축복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사의 각오로 헤쳐가신 불멸의 자욱을 따라 제가 조국의 동부선악 2,500리의 행군길에 올랐던 그때처럼 귀중한 우리 총련을 위하여, 사랑하는 재일동포들을 위하여 더욱 용진하라고 힘과 용기를 주신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워주시고 해외동포연락옹호법까지 제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총련은 진정한 우리의 고향

진정 어머니의 정은 한가정의 트랙을 넘지 못하지만 위대한 우리 어머니의 정은 이역만리에까지 따사롭게 비쳐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총련의 력사는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따듯히 품어안아 빛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인 동시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깨닫고 향미를 따라 다바쳐온 우리 재일동포들의 애국충정의 력사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그 길에서 빛나는 영생과 값높은 삶을 받아안은것입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총신들의 전렬에 내세워주시던 한덕수동지, 조국에서 김정일훈장이 제정되었을 때 첫 수훈자의 영예를 지닌 서만술동지, 심미리에 국력사상에 안착되어있는 리진규, 문동건, 박정현, 남시우, 박희덕동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재일조선인애국자들의 영광넘친 삶은 조국을 따르는 길에 영원한 행복과 미래가 있음을 후대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지만 공화국을 영원한 삶의 품으로 믿고 따르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으며 재일조선인운동사는 공화국의 발전행로를 따라 앞으로 영원히 즐기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글을 마감하며 저는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를 세계의 최정점에 올려세우시어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강국공민의 영예와 존엄,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시는 만고절세의 위인,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목청껏 소리 높이 외칩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며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주체 112(2023)년 9월 일본 도쿄에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

